

이재명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다 드리라”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지원해 줘야 할 사람 발굴 효과. 누구나 필요로 하면 다 드리라”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요즘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경찰쪽에서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올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 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곳을 이용해야 할 정도면 사실은 지원대상이다. 약간 악용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다시 올 경우 확인해도 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는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발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시면 그냥 다 드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립광명푸드마켓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광역푸드뱅크에서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 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해 현재까지 32명이 이용했다. 도는 광명을 비롯해 성남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활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밥,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



지서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이달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이달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프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정근기자

[칼럼] 성형 공화국

성형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면 한심한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 씩은 미소가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찢어진 눈과 납작한 코, 한국인의 얼굴을 싫어하고 서양인의 모습을 동경하는 사회가 된 듯하다. 서양사람들은 반대로 동양사람의 얼굴을 좋아한다고 하는 데 말이다. 요즘 가끔 도심을 걷다 보면 너무 비슷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 신기하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일부 연예인들과 비슷한 얼굴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더욱 한심한 생각이 든다.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나 불의의 사고로 성형을 해야 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성형을 하더라도 너무 똑같은게는 안 좋으면 한다. 공장에서 마네킹 찍어내듯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기에 인형들이 거리를 걷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 문제를 놓고 성형전문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외국사람들도 묻는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 많은가 하고 말이다. 이제는 성형을 하더라도 개성을 살려서 본인 특유의 장점을 살아있는 얼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황신해, 전지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재미만 상상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서양미인 되기 위해 코 높이고, 턱 깎고, 키높이 구두 신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하니 더욱 그렇다. 이제는 방송에서도 자랑거리라고 중국인들이 성형하러 한국에 많이 온다고 떠들고 있으니 한 마디로 한심하기만 하다. 어떻게 우리가 서양사람들과 같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양미인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서양미인들의 몸매 비율이 나코 높이, 눈 크기에 비하면 한국의 '레플리카'미인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요즘은 남자아이들도 성형을 한다.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는 듯하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아무리 깔고 노력

해도 서양 미남에 비하면 턱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방송들 한국에는 미인 많다고 부추기고 성형을 장려하고 있다. 일부 방송에선 성형미인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기도 한다. 미에 집착하는 병든 우리 사회 대중매체와 방송 외모지상주의에 앞장서는 선봉장들이다. 어쩔 수 없이 성형해야 하는 사람들은 마음 아프고 이해가 되지만 수능시험, 취업 위해 성형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씁쓸하기만 하다. 외적, 가식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는 언제나 이루어지려나 암담하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미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한국인 얼굴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난 요즘 결혼식장, 어린이들이 안고 있는 엄마들과 아이들 모습이 틀린 사람들을 종종 본다. 우리 외모가 바뀐다고 서양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부터라도 한국인 얼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 요즘은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코가 무너지고, 피부가 썩고 뼈가 무너지는 현실이 말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귀한 얼굴, 얼굴의 뜻은 '얼' 정신을 말하고 '굴' 얼이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란 뜻이다. 그 얼굴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진실된 사랑을 꿈꿀 수 있을까. 외모만 따지는 거짓 사랑에 속아 사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서양사람들은 박경림처럼 각진 얼굴 찢어진 눈을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얼굴, 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 언제 이 땅에도 레플리카미인, 짝퉁 미인 사라지고 진정한 한국의 열을 찾는 아름다운 자연미인들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말이다.

덕암/김근식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계절관리제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충북 음성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과 같은 기상여건으로 평소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12월~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배출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충북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조기폐차, 매년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음성군 환경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년저감장치 장착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2천매를

취약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올해 사업추진 내용은 1월 중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대응 실천 캠페인’을 군민과 함께 실천한다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올해 ‘어디서나 30분 이내 도착’ 산불진화헬기 운영에 100억 투입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에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법해충 예방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동심동덕의 자세로 새해 적극행정” 당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 행복지수 높이는 노력 경주”

김정섭 공주시장이 2021년 신축년은 ‘동심동덕’의 자세로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월중 업무계획보고회에서 “올해는 무령왕이 갯위강국을 선포한지 1500년,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자는 의미에서 ‘갯위강시 동심동덕’을 시정화두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역점시정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을 최우선 순위로 꼽은 김 시

장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임기 초부터 펼쳐왔던 소통행정을 새해에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모든 사업의 목표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남공주산단 등 6개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1200억원 규모의 공주페이 유통을 통해 소상공·지역업 위주의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2021 대백제전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1500년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중부권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한, 어려운 계층

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를 펼쳐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각자도생을 미덕인 것처럼 말할 하지만 동심동덕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를 꾀할 수 없다.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과 경제활성화 업무에 매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제2안민터널’ 찾아 새해 첫 현장행정 시동

취임 후 5차례 방문해 직접 공정 행거... 안전관리 및 빠른 개통 주문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오후 3시 진해구민의 염원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창원시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새해부터 현장 중심 행정에 첫 시동을 걸었다. 시는 그동안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을 위해 보상비를 전액 확보해 지난해 10월 보상을 완료했다. 허성무 시장은 취임 후 총 5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해 직접

공정을 챙기는 등 최대한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제2안민터널’의 빠른 개통은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이날 공사 및 문화재 발굴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창원시민 숙원사업인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허성무 시장은 문화재 조기 발굴, 공사 공기 단축 등 ‘제2안민터널’의 빠른 개통을 위해 시행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

청을 비롯해 시공사, 문화재 조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문화재 보호에도 주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출퇴근시간 기준 안민터널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제2안민터널의 빠른 개통은 반드시 필요해 문화재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사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호/기자

박기열의원, 상도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역 발전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인정 받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달 31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상도겨울나기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후원처 개발과 그동안 해온 자원봉사활동 등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상도겨울나기 프로젝트 설 명절 나눔데이행사’에 참여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및 아동을 포함한 200명이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체와 후원자를 연결해 꼭 필요한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했고 2020년 12월 한전KDN에서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동참했다.

후원금 전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이수진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후원금이 감소하고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려워진 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선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점차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들이 상대적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많은 후원자가 필요한데 후원자 발굴과 연결을 위해 앞으로도 충실히 역할을 다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개관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지

역사회조직사업, 노인기능특화사업, 상도배움터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원사업은 지역 내 취약, 소외계층의 생애 주기별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급식 사업,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예술인 창작수당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만큼 예술인에게도 예술인 창작수당 등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정부에서는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문화예술영역으로 받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을 설정한바 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은 소수의 예술인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용

역이 아닌 개인 창작 중심의 분야는 적용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자는 34.4%, 예술활동 창작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원, 월평균 5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동 특성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미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은 여전히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모든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만식 위원장

은 “전국민의 공론화 등 전국적인 예술인 기본소득을 바로 시행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예술인 창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9월 현재 경기도내 예술활동이 증명된 예술인은 21,453명으므로 1인 10만원씩 1년 간 창작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257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분야 위기극복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기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서 제도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최정근/기자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긴급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

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서울시민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

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박옥분 의원, ‘2020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청소년 1,000인이 직접 선정하는 ‘2020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희망대상’은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며 2015년부터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 청소년 인권향상,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조례·법률·정책을 펼친 국회의원·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1,000인의 투표단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매우 의미 깊은 상이다. 해마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직접 시상식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수도권 방역지침이 상항됨에 따라 공식 행사가 취소됐고 약식으로 31일 박옥분 의원을 추천한 청소년들이 장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상식을 갖게 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여성,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발굴, 예산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령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왔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도내 청소년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왔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여자 청소년 쉼터 확충, 어린이공원과 도서관 리모델링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고민했던 흔적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좋게 평가해주어 그 어느 상보다 기쁜 마음으로 큰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 정책이 경기도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정근/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구 독 신 청, 배 달 안 내 : 1899-9659 구 독 료 :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 02) 2060-4147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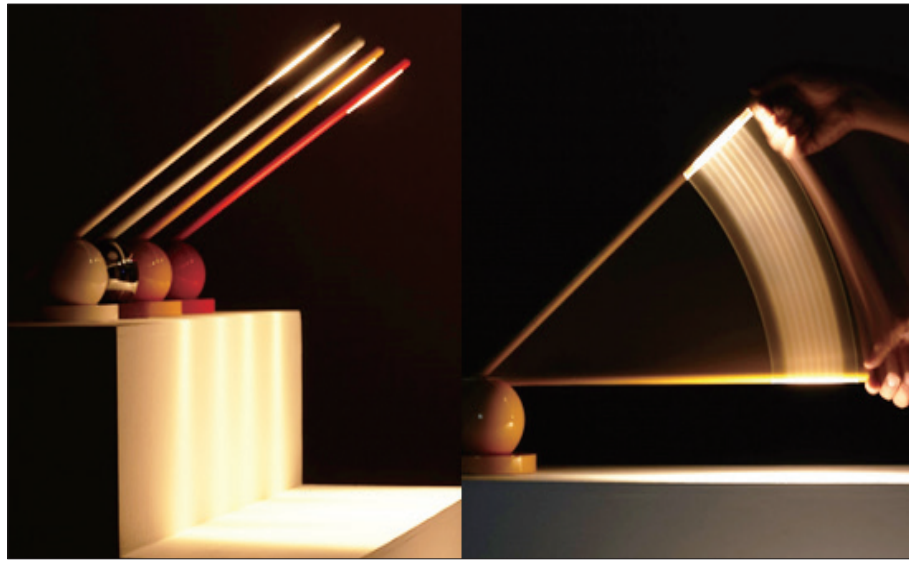
용인시의회
YONGIN CITY COUNCIL

서울디자인재단, 2020 DDP디자인페어 'DDP베스트디자이너어워드' 7개팀 수상

국내 최초 온라인 비즈니스 런칭 페어, 접속회수 20만회 기록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디자인페어'에 출품된 총 103개의 제품 중 7개를 선정해 12월 22일 'DDP베스트디자이너어워드'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시대에 오프라인을 넘어 국내 최초 온라인 페어로 진행된 DDP디자인페어는 제조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전문 디자인 비즈니스 런칭쇼다. 지난달 20일에 개최해 현재까지 접속회수 20만회 이상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P디자인페어는 연 중 상설전으로 운영되며 최신 디자인 트렌드는 물론이고 하나의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디자이너 및 소상공인 제작환경과 제품을 담아 제작된 이번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디자인 환경을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플랫폼으로 단순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문 페이지로도 오픈한 DDP디자인페어

는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널리 알리고 참여한 소상공인,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DDP디자인페어에 출품한 제품 중 'DDP베스트디자이너어워드'를 통해 7개 제품이 선정됐다. 심사에 국내외 유명 리빙편집숍 관계자와 제품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12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수상한 7개 제품은 디자인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제조 소상공인과 디자이너 간 탁월한 협업으로 상품성과 실용성까지 겸비한 제품이다. 수상한 7개 팀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제품 양산지원 비용과 DDP스토어 입점 혜택 등이 주어지며 단순 상금지급에 그치지 않는 제품 양산 단계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에 참여했던 루밍 박근하 대표는 "바로 양산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전체적 제품의 품질이 매우 높다"며 DDP디자인페어의 제품 품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우퍼디자인 한경하 대표는 "지속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



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DDP디자인페어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한편 DDP디자인페어는 2021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며 더욱 다양한 분야의 서울 제조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만남을 주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유명 페어와 적극 연계해 해외에 국내 제조상인 및 디자이너를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로써 국내외를 대표하는 글로벌 페어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초 DDP에서 오

프라인 전시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DDP디자인페어가 코로나19로 인해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이 참여해 디자이너 및 산업 생태계 발전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써 빛나는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앞으로 지속 개최되는 DDP디자인페어는 내실을 다져 보다 글로벌하게 해외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밝혔다.

최광수/기자

동작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오픈

동작구 빅데이터를 말하다

동작구가 오는 6일 주민들이 공공데이터 및 각종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우리 동네 지도, 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민선7기 정책 지표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동작구 관련 자료를 모아 총 116종 2만여 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지도, 그래프 등 시각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란으로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동작톡'을 오픈한다. '챗봇'이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정보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건 주차/자동차 일자리/경제 부동산/건축 복지 청소/환경 문화/체육 일 반행정 등 8가지 분야 총 219종의 민원을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카카오톡에서 '동작톡'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도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은 "체계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강화로 공공서비스 개선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코로나 위기 극복 목표로 새해 구정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 직원들 각자 자리에서 영상 시청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새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목표로 구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4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살기 좋은 안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4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돌봄시설 방역 지원을 위해 코로나 Zero 안심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통합민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선도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튜터와 스마트 칠판 등을 지원하고 서대문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구립도서관 시스템과 서대문 키드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불었다. 문석진 구청장은 사람과 지구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조성 계획도 밝혔는데 "에너지효율 진단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탄소 제로 청사 조성,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용안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

의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통시장을 온라인 마켓 및 배달 플랫폼 등과 연계하고 상점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주민 접근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구청장은 "새해 동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동네 문제해결 실험실 '로컬랩'을 추진하는 등 주민 주도 협치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순/기자

성북구, 코로나19 맞춤형 사내방송 시무식

서울 성북구, 4일 사내방송 통해 비대면 시무식 진행



서울 성북구가 사내방송을 통해 2021년도 비대면 시무식을 진행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모범적 실천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성북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의 생방송 비대면 시무식을 진행했다. 구청 전 부서와 관내 20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근무하는 1,500 성북구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을 청취하며 비대면 시무식에 동참했다. 일일 진행자를 맡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45만 성북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성북구 직원에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문화·경제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위기의 상황에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하고 생활 공감정책을 발굴함으로써 20여 개가 넘는 외부 수상을 한 1,500 성북구 직원의 자력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며 독려했다. 아울러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소처럼 우직하게 45만 성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로 방송을 마쳤다. 시무식 방송을 청취한 성북구 한 직원은 "다수의 직원이 모여 새해

의 결의를 다지고 덕담을 나눴던 2020년도의 시무식이 떠오른다"며 "2020년도 비대면 시무식에 이어 2021년도 비대면 시무식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만큼 45만 성북구민의 달라진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는 소감도 밝혔다.

강성원/기자

'랜선 메시지'로 신축년 맞은 은평구

2020년 종무식과 2021년 신년인사회 유튜브 송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새해를 맞는 자치구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은평구는 2020년의 종무식과 2021년 신년 인사회를 유튜브 송출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매년 종무식과 신년 인사회는 대면으로 만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자치구의 주요한 행사이다. 코로나19의 여건상 은평구는 비대면 사전 영상 촬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2021년 구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공감대를 넓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와 북한산 한문화 특구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축으로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문화밸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구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선도적인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구청장은 "새해 포부를 밝히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확대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순환사회 촉진정책으로 구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김 구청장은 탄탄한 그물망 복지와 마을공동체를 강조하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

는 구정을 만들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조연결의 시대를 맞아 온라인에 기반한 비대면을 공공영역 전반으로 확장해 공공과 주민, 주민과 주민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은평구의 2021년 구정 방향이 기대된다.

조상순/기자

도봉구, 4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누구나 차별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만든다

인권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인권지표 개발 및 비전 체계 등 구축



도봉구가 구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담은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사회적약자의 인권 옹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시민의식 강화 인권행정 인프라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정책목표와 19개 분야, 22개 추진과제와 127개의 실행과제가 담겨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 국내·외 인권도시 사례 분석과 도봉구 인구, 환경, 문화 등 지역적 특성과 인권 여건 분석, 입지계수를 이용한 도봉구 인권 수요-공급 차이 분석, 제1기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분석·평가, 주민 인권실태 설문조사 및 사회적약자 등 그룹인터뷰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안을 마련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고 온라인을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인권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봉구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 비전과 실행과제를 선정하는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도봉구 인권주간 기념식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인권도시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인권도시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도봉구인권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인권부와 도봉구인권센터 그리고 실행과제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최광수/기자

서울시, 여의도공원 전차구경·보신각 타종 '1월의 미래유산' 선정

제야의종 타종행사로 대표되는 '보신각타종' 등 1월의 미래유산으로 선정

도심 속 시민의 쉼터 '여의도공원', 하근찬의 단편소설 '전차구경', 조선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보신각 타종' ...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1월의 역사가 담긴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미래유산을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1월의 미래유산'에는 1999년 1월 24일 개장한 '여의도 공원',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하근찬의 단편소설 '전차구경', 신년맞이와 상징적인 제야의 종 행사로 대표되는 '보신각 타종'이 선정됐다.

여의도 공원은 1999년 1월 도심형공원으로 조성된 여의도의 랜드마크이다. 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 1916년부터 1971년까지는 비행장 및 공군기지 등으로 활용됐으며 1972년에는 5·16 광장으로 조성되어 대규모 군중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이다. 1997년부터 추진된 여의도광장의 공원과 사업으로 탄생한 '여의도공원'은 도심 속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로 기능하고 있다. 공원은 한국전통의 숲, 잔디마당, 문화의 마당, 자연생태의 숲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날마다 적게는 2만명에서 많게는 3만5천 명까지

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처음 지하철을 마주 한 시민의 감정을 기록한 '전차구경'은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하근찬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당시 서울의 풍경과 지하철 개통 등 서울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소설 '수난시대'의 작가로 유명한 하근찬은 '전차구경'에서 특유의 향토성 짙은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지하철이라는 신문물을 접하는 조주사와 손자의 하루 여정을 다룬다. 작가는 이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을 토로하며 옛 시절 인간미 넘치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을 전한다.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으로 가장 유명한 '보신각 타종'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는 대표적인 신년 행사로 1953년부터 매년 서울 시민들과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새해 첫날은 물론 3·1절, 광복절 등 다양한 기념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제야의 종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보신각 타종'은 새해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33회 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는 조선시대에 이르면 새벽 사대문을 열어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



는 '파루'에 종을 33번 친 데서 유래한다.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카드뉴스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의 '이달의 미래유산' 게시판과 서울미래유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4.~1.12. 기간 중 서울미래유산 SNS에서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관람하고 새해 소망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케이크를 5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울미래유산 SNS 이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서울미래유산' 페이지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1.15에 발표될 예정이며 미래유산 SNS의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어야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488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미래유산 브랜드 투어,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월의 미래유산은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과 도심 속 푸르른 쉼터인 '여의도 공원' 등 시민들에게 친숙하며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미래유산들로 선정했다"며 "매월 소개되는 '이달의 미래유산'을 통해 우리 주변의 미래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중구, 2020년 공모사업 결산해 보니 전년도 3배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 100억원, 대현산과 약수동 이동편의시설 설치 50억원 등

중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 각 부처와 서울시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에서 58개 부문 3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한 해 재원 확보를 위해 중구가 얼마나 분발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찾아 응모하고 노력해 맺은 결실이라 의미 깊다. 공모사업은 지역특성과 창의적 행정을 결합한 사업 아이디어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대외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는 부족한 사업 재원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된다.

중구의 공모사업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확보한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란 지역 내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에서는 신당5동이 최초로 선정됐다. 구는 향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하면 관련 사업비 최대 300억원 가량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대현산 배수지공원 구릉지 모노레일과 동호터널 옹벽 옆 엘리베이터 설치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구가 이에 응모해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정부 사업의 결과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주민들과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합심으로 빚어낸 작품이라 더욱 소중하다. 주민들의 생

활편의 개선을 위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36억원, 2020년 하반기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10억원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12개 사업에서 36억 7천만원을 획득해 두각을 나타냈다. 이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17억 8천, 이류제조업체 협업화와 시설환경개선, 스마트 엔지니어링 협업 사업 3억원을 지원받은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힘겨워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도 적극 임해 알찬 결실을 맺었다. 덕분에 서울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14개 분야에서 총 18억여 원을 확보함으로써 한 해 동안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공간·청소년아카데미 조성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 주민들을 위한 배움프로그램 운영부터 도로 환경,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비를 교부받는 등 한 해 동안 적극 행정으로 일궈낸 수확이 풍성하다. 이렇게 중구가 지난해까지 외부기관에서 확보한 사업비는 2011년 6억 9천만원을 시작으로 무려 1천12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양호 중구청장이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확보한 외부 예산은 448억원으로 불과 2년 반 만에 획득한 예산이 10년 동안 유지한 실적의 40%를 차지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전년도에 비해 3배나 되는 예산을 확보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직원들의 창의력과 적극 행정이 이뤄낸 결실이다. 신축년 새해에도 소처럼 우직하고 힘차게 주민들의 행복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정착 위해 팔 걷고 나선다

지자체 3월 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 통해 실질적 복지 욕구 파악해

서울 노원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토대 구축에 나섰다.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12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이탈주민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는 지난해 3월 이탈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총 431명이 응답한 설문결과 주민들은 취업과 기술자격증 취득, 의료지원 등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올해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도와 이탈주민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개인별 학원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올해 2~3월 북부나센터를 통해 선정한다. 또 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탈주민 자녀들은 남북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언어 이해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

다. 이에 구는 내년부터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1:1 방문학습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로 주 1회 방문을 통해 한글, 수학 등의 과목을 지도받게 된다. 아울러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어려움도 보살핀다. 구는 하나원에서 노원구로 최초 전입하는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체검진, 기초혈액검사, 진찰 및 상담 등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 병원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생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매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구청과 기관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또 북부나센터와 동주민센터 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위기대상 사례 공유와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탈주민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2만3천여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 바 있다. 오승목 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 3년 연속 장관상 수상

'생활속 사회적경제, 탁트인 영등포구 실현' 슬로건의 담대한 실천의 결과 자평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초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3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 평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지난 10월부터 평가자료 서면 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민간전문가포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적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이다. 수상 규모는 지난 2년 간 10개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구는 흔들림 없이 3년 연속 장관상을 거머쥐면서 '생활속 사회적경제, 탁트인 영등포구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평이다. 구는 지난해 1월 전담조직인 사회적경제과를 미래비전추진단 산하에 두고 주민과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생태계 조성 생활속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정책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집수리와 돌봄'의 키워드를 은퇴 시니어와 청년의 상생으로 풀어낸 '집키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이와 어르신 통합돌봄을 만든 '아파트 생활공작소', 지역사회 문제를 주

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내고 실행해볼 수 있는 '소셜벤처팀 육성사업'과 초등방과후 돌봄과 요리돌봄으로 공격돌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회서비스 사업' 등은 주민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제시한 구의 독자적 브랜드 사업들이다.

한국판 뉴딜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기업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그린 뉴딜 부문에서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의 공유, 공공 의류수거함 운영, 버스정류장 등 도시정결 업무 위탁 운영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들이 대표적이다. 디지털뉴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SKT와 함께 AI 스카피를 활용해 300여 가구 독거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행복커뮤니티 사업'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개발한 '집키미'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집수리, 방역과 정리수납 등 수요와 공급의 연결점을 찾은 사례가 그것이다. 안전방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있다.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 전개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1월 43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1.9배 성장한 81개이며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도 354개소에 이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민선7기 내내 주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국정과제이자, 한국판뉴딜 실현의 또다른 돌파구"며 "주민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일/기자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마포구 주요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주민 행복 이끌 2021년도 57개 핵심정책 공개

마포구가 2021년도에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을 공개했다. 마포구는 202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368개 사업을 수립했으며 이 중 57개 핵심사업의 키워드로 '환경 변화 속 혁신'을 제시했다. 2021년도 마포구 핵심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땅 속의 소방서 '지하 비상소화함' 설치 리거가게 시설교체 사업 마포형 빅데이터 분석·활용 스마트 행정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스타트도서관 설치 합정동 도시재생 사업 마포사람 방역지도 구축 ICT 활용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꼽힌다. 마포구는 2021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주 3일 수거주기를 주 5일로 확대해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도 시행된다. 주민이 모바일 폐기물 수거 앱인 '빠기'를 활용해 배출품목 사진을 등록하면 이사업체가 배출을 돕거나 중고거래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시장에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지하 비상소화함'이 설치된다. 구는 오는 6월까지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아현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총 10개의 지하 비상소화함을 설치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리가게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도 예정됐다. 노후화된 기존 거리게 매대를 마포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시설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거리가게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마포 지역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행정도 시도된다. 구는 공공자전거의 주요 이동경로 및 상권을 교차 분석해 지역의 특색상권과 테마상권을 시각화 한 '마포 따릉이 상권지도'를 개발해 오는 2월 공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이 마포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포구 전용 상권분석 플랫폼을 오는 3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및 주민의 온라인 쇼

조성순/기자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청렴도 향상 위해 광역최초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진주시,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연말연시 모임과 이동 최대한 자제 당부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을 매개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연말연시 가족, 지인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여 설명했다. 시에는 72개소의 골프연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실내 골프연습장은 63개소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조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전시민을 대상으로 신속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노인요

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612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고 28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 357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앙동 전통시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858명의 시민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 7개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누구나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증상 및 잠복 감염자 등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확산을 차단한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어제까지 검사한 4318명 중 13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도 했다. 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무료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역학조사 조차 버거운 상황이지만 무증상 및 잠복 감염자 등 숨은 확진자를 찾아 내지 않고서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 3일 동안 시에서 가족 간 감염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는 3일간의 신규 확진자 35명 중에 45%를 넘는 수치이며 사회활동은 물론, 가정

내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가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간 대화나 접촉을 금지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친척집 방문 등 타 지역 이동이나 관내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조규일 시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올 한해, 우리 시민 모두가 유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해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우직하고 성실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횡성군, 새해 특별 방역대책 추진

횡성군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새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횡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를 포함,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새해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강화된 추가 방역 대책은 아래와 같다.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이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을 금지하며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되고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일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미사·법회·시 일시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집단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횡성을 섬강둔치 및 횡성호수길 5구간 이용 통제도 계속된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내·외 체육시설도 잠정 폐쇄한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양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집단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국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며 양양군도 2021. 1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는 1. 4 0시부터 별도 명령까지 지속되며 주요 핵심 조치 사항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을 제한하며 이용률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을 금지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등도 지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군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으로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이내 예약제한,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정구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을 금지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이번 2단계 강화와 관련해 분야별 관리부서 대상시설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행안부 주도 '중앙합동점검단' 연장운영 및 현장점검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간 사전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시도에서는 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양양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는 총 1,914명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김재미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및 시설 등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고양시, 대규모점포 등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조치 이행 여부 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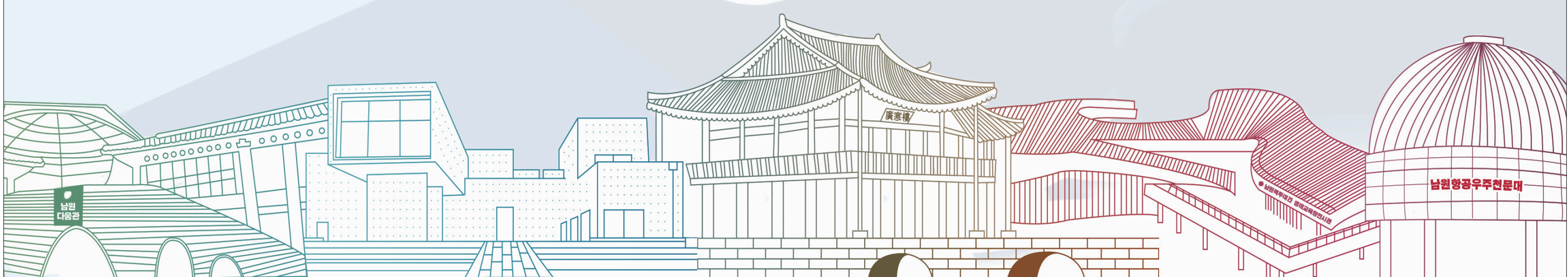
고양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연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시장, 공공기관,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18,000여개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4일 대규모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준수사항 안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의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대규모점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심콜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대규모점포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출입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관리자 등이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출입자 관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관리 미비나 태만 등으로 코

로나19 전파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점포 대상으로 행정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점포 등에서 2m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매장 내 3.3㎡ 당 1명, 매장 밖 대기줄의 경우 1m 간격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186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한다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종사자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통보 완료해, 올해 1월부터 화정역 광장, 정발산역, 일산역 등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안심콜 및 대규모점포 출입제한 행정명령 건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시행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 밝혔다.

김영근/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파주시, 2021년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

47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년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2021년 파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변경 사항,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제도들의 변화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과 이차지원이 확대되며 비대면 소비 급증과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가 금촌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1월부터 시작되며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학자금 상환자금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및 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구축, 경영안정 자금 확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1월 개소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의 변화도 다채롭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조조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셋째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부터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충하고 청소년 휴카페 2호점 조성하며 아동보호 전달인력을 채용한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에는 월 7만원, 65세 미만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 장려금 지원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로 2021년 파주시의 포용복지 정책은 더욱 탄탄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인형로봇을 통한 치매 어르신 스마트 돌봄과 보건소의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이리 ON'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의 도입 등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나은 시민 삶을 위한 문화, 체육, 환경, 안전 분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비대면 안심도시대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하도서관에 안심도시대출함이 운영된다. 야당역에 설치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부영이책장이 5월경 문산역에 추가 설치되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영어 콘텐츠

를 활용할 수 있는 영어전자책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조리실내배드민턴장,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운정 EBS파크 개장, 운정호수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문화·체육 기반 조성도 이루어져 시민 삶을 보다 유쾌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형 뉴딜정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 변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문산 당동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가든 8개소, 책향기 교차로와 석곶초등학교 도로변 보행로에 경기 초록담 조성이 추진된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와 실시간 알람시스템 운영과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잘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가 3월 설치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 보장항목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방범용 CCTV 110개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편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사거리, 갈현사거리, 책향기교차로 대원사거리 등 상습정체구간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교차로 대기차로 및 우회전 전용차로 추가 확보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해 시민 만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파주플렉스 모바일 앱 개선을 통해 도착지 이동경로 표시 및 안심귀가 기능 탑재 등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도 본격화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목적지까지 신호연동을 자동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정해진 보행시간 동안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에 대해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주차정보 통합제공 시스템을 통해 시민중심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는 물론 바우처 택시가 40대로 확대 운영 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주차불편 해소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와 스피클론 과속경

보시스템 설치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을 이뤄나간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위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주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빈집활용 핵심점포 육성 및 빈집철거·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탄현 낙하리, 문산 운천리 2곳에 신규 건립되며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고품질쌀 수매 장려금 지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구축, QR코드를 활용한 농기계 유튜브 교육영상 제공으로 보다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장단공을 활용한 6차산업 복합단지인 '장단콩 웰빙마루' 개장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정환 파주시장은 "2021년 파주시는 시민에게 보다 만족을 드리는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1년 변화하는 파주, 달라지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공고·홍보-시정·관광 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고양시, 코로나19 대응 '고양 희망알바 6000'백서

'우리를 이어준 나날'제작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응 '함께 가는 공공일자리 브랜드'인 고양 희망알바6000의 백서인 '우리를 이어준 나날'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최대 금액인 고양시 일자리기금 100억 신규 조성에서부터, 2020년 일자리기금으로 시행한 코로나19 긴급 방역단, 고양 알바100, 고양 알바500, 고양 희망알바6000 등 일련의 사업 과정들이 수록됐다. 시는, 최근 3차 대유행이라 불리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향후 고양시는 물론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한 유형의 위기극복 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작업을 줄일 수 있는 길잡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책자를 기획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섣달 앞기 어려운 공문서 느낌을 최대한 없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부서별 사업 내용과 성과를 취합·정리하는 기존 백과사전식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선에서 따라가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로 구성했다. 특히 지역 공동체와 '같이'의 가치를 토대로 시행한 '고양 희망알바 6000'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 삽화와 이야기까지 포함해 기존 백서들과 확실히 차별화했다. '고양 희망알바' 사업의 추진 과정을 책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



는 나무의 성장과정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씨앗을 심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다 새싹이 돋아나다 펼쳐난 가지에 잎이 돋아나다 나무가 자라다 더 큰 나무가 되도록 등 6단계의 스토리텔링 구조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이 책은 고양시장은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2020년 고양시의 함께 가는 공공일자리 브랜드인 '고양 희망알바

6000' 이야기가 희망을 전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만들었다"며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지역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현장 중심의 다양한 소통·협력 창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하 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2021년 시흥청년해피기업 30개 선정

시흥시와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고 청년은 일하면서 happy 할 수 있는 기업

시흥시는 2021년 '시흥청년해피기업' 30개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인력난 해소를 돕고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흥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5개 기업을 인증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해피기업 환경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30개 기업을 추가 인증해 시흥청년해피기업은 총 55개 됐다. 2021년 도 인증기업은 주식회사 비엔에스조인트 등 30개 기업이다. 시흥스마트사업단지 등 관내 중소기업 25개사와 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한 청년스타트업 5개사도 인증해 청년기업가들의 경영활동도 지원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지난해 시는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패키지사업에 참여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흥사랑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기업과 청년

에게는 매일 16만원씩 3년간 공제금을 지원했다. 또한 '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는 청년재직자에게 월 5만원씩 모바일 시무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기업에서 '좋은 직장 문화만들기'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흥시민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제작단을 통해 대덕종합기계 등 10개 기업의 홍보동영상도 제작했다. 시흥청년해피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 근로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시흥청년해피기업으로 인증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 다니는 것이 더욱 즐겁다"며 "앞으로도 계속 일할 맛 나는 시흥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년 시흥청년해피기업 30개사 역시 시흥시와 함께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

은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기업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지원해 주신 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며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중소기업과 시흥시가 상생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흥청년해피기업과 함께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으로 많은 청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박승원 광명시장, 2021년 신년사 “새로운 일상으로의 대전환을 만드는 한 해 만들 것”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대전환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의 기틀 마련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1년은 광명시가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광명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계의 해로 삼겠다는 신축년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틀 마련에 노력해왔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가 몰고 온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시정 운영을 위해 94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권 보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 추진 일상의 가치를 더하는 생활정책 강화 미래를 선도하는 자족도시 실현 등 4개 분야 사업을 언급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여파로 어느 때보다 직업전환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과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교육, 마을교육을 강화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년 전 광명시에 평생학습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시민학교 유네스코인증 추진할 만큼 평생학습과 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며 2021년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 원년으로 삼고 광명형 지역뉴딜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지역의 녹색산업 생태계 조

성,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에 그린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디지털 트윈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행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광명핀셋발굴단과 더불어 사는 자치돌봄 사업을 강화해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1인가구 돌봄 강화로 일상에 공정의 가치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총 650억원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시대적 소임으로 삼겠다”며 “이동 노동자 쉼터, 노무상담, 노동교육 강화로 노동이 존중받는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역세권 의료복합단지 포함 신산업분야의 민간 일

자리 창출과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지를 다졌다. 일상의 가치를 더하는 생활정책으로 걷기 좋은 보행로 정비, 주차장 건립, 공원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명동 시민체육종합센터, 일직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국 최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으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의 계획을 전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광명시가 복지분야 3관왕, 청년정책분야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광명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문화북향단지, 하안2지구 공공주택개발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안산선 학운역, 월곶-관교선 완공과 인천2호선 연장 추진, KTX광명역 기점으로 한 남북평화철도 시대를 여는 자족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순희, 최정부기자

“시민 안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염태영 시장 신년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민반의 대책 강구할 것”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사에서 “2021년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올해 경제 활성화는 코로나19 극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민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동과 실천으로 수원공동체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셨다”며 “시민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지난 10년 간 시민 여러분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셨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왔듯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올해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2022년 1월, 우리는 대한민국 첫 ‘특례 시민’이 된다”며 “준광역시급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원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람 중심 포용 도시 조성, 수원만의 문화 가치 창출, 혁신 성장 미래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정근기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1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작

시흥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2022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는 2021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1월 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개모집한다. 올해 제안사업 공모는 각 동 주민총회가 시작되는 8월 전 사업적정성 심사를 거쳐 참여예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공모규모는 50억이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 정책 14억, 동 특화 14억, 동 지역 사업 22억 이내 범위에서 선정하게 된다. 공모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내 18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동 자체심사, 부서 검토, 예산 적정성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심사,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한마당을 거쳐 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22일 개최한 2020년 제5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1년 365일 상시 접수창구 구축 동 자체심사 과정 신설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

202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공모안내

- 공모기간: 2021. 3. 31. 까지 (단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 대상: 시흥시민, 시흥시 관내 기관·단체·학교·군부 및 소속 등
- 공모분야:
 - 시 정책사업 14억 원
 - 동 특화사업 14억 원
 - 동 지역사업 22억 원
 - 총 예산 50억 원

접수방법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jumins.sihung.go.kr/) 사업제안 코너

접수문의

동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 연락처

※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s.sihung.go.kr/)를 확인하세요.

여예산 선정절차 확립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차등 인센티브 제 공 등이며 이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31건, 17억7천만원 감면 혜택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

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대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까지 추가 연장

신청기간: (원형) 2020. 2. 1. ~ 12. 31. (11개월) (연장) 2021. 1. 1. ~ 12. 31. (12개월) ※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은 계속 지원

감면대상: 경기도박물관 등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 ※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은 계속 지원

구분	지원기준
재난기간 중 사용된 자	임대료 요율 5%~1% 인하 요율 제정
정기점검 등 사용이 중단된 자	시설유지 비용 지원 (내년 100% 지원)
비상사태 발생 시	시설유지 비용 지원(기간연장 기간 연장)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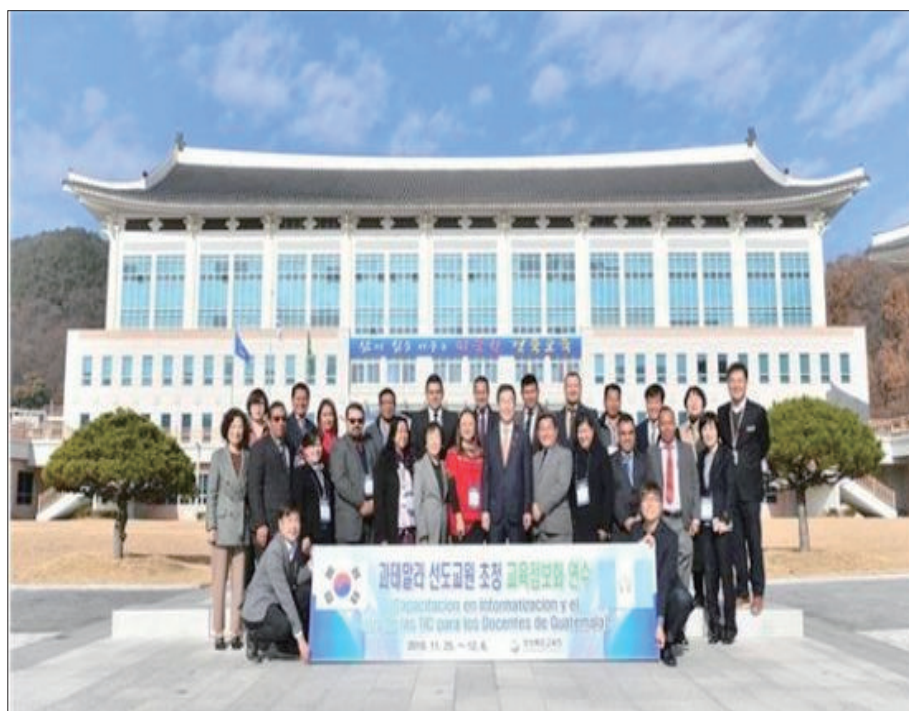
세계속의 K-에듀로 경북교육 브랜드 가치 UP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추진

경북교육청은 세계 속의 K-에듀로 경북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기회 부여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선도 교원 초청 연수를 통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과테말라 공화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컴퓨터 2,000여대를

지원했고 교원 250여명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을 했다. 올해는 이터닝 인프라 지원용 컴퓨터 110대와 과테말라 교육부 소속 교원 20명을 초청 연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류협력국 간 MOU 재체결과 지난해 K-에듀 온라인 원격수업을 바탕으로 심화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피드백 할 수 있는 연수후 프로그램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경북교육청을 다녀간 교류협력국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 한국 정서를 가르치게 될 것이며 지원한 교육정보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으로 양국 간의 미래 산업을 반 구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비대면 걷기프로그램 ‘예천군 뚜벅이’ 참여자 모집

2021년 건강을 챙기는 첫 걸음 따로 걷고 함께 누리는 혜택

예천군이 코로나 블루 극복과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이달 4일부터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인 ‘예천군 뚜벅이’ 참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부활동 감소,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신체 활동이 위축되자 건강관리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걷기 운동 실천 격려 차원에서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방법은 예천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추천 커뮤니티에서 ‘예천군 뚜벅이’를 검색

정동호기자

걷기만 해도 혜택받는 예천군 뚜벅이 참여자 모집

따로 걷고~ 함께 누리는 혜택~
2021년의 건강 첫걸음,
예천군 뚜벅이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1. 4.(월) ~ 연중 가입가능
- 대상자: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한 예천군민 누구나
- 가입방법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워크온' 검색!

회원가입

추천 커뮤니티 "예천군 뚜벅이" 검색

거주음·면 선택

개인정보 취급동의

가입하기

- 내 용
- 참여자 전체, 읍·면별 걸음 수 랭킹
- 매월 걷기 미션 실시 후 성공자 선물지급
-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동아리 신청 시 별도의 그룹으로 랭킹제공!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팀(☎ 650-8023)

예천군, '예천장터' 2021년 설맞이 특별 판매 행사 진행



신축년 소띠 해 맞아 행사 진행, "예천장터에서 설 선물 사소~"

예천군이 2월 1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농·특

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판매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3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구매 금액별 즉시 할인 쿠폰 제공과 10+1 텀 행

사, 온라인 구매회원 랜덤 포인트 적립 행사 등 전 보다 더욱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히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뒤늦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명절 마지막 날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용 편의를 도모했다.

정동호기자

영주시, 진로체험처 가이드북 및 리플릿 발간

영주시는 중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체험정보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영주시 진로체험처 가이드북 및 리플릿'을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약 5개월간 관내 진로체험처 현장을 직접 방문해 56개소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했다. '영주시 진로체험처 가이드북 및 리플릿'은 공공기관 16개소, 기업체 2개소, 대학교 3개소, 개인사업장 35개소 등 4개 영역별로 56개소의 진로체험처 체험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 진로체험은 체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매년 반복된 동일 체험처로의 방문을 지속해 실질적인 체험의 장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에 이번 발간된 '영주시 진로체험처 가이드북'은 관내 진로체험처내용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진로 체험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졌으며 관내 체험처방문에 대한 영주시 보조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꿈과 끼를 찾기 위한 관내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해 중학교 진로담당교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지원사업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호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 ~

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로서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시행된다.

특히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재산기준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종전대로 부양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김영호기자

봉화군, 2021년도 공수의 위축

우리군 가축 전염병 지킴이

봉화군은 1월 4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청정축산 유지를 위해 지역 수의사 4명에게 2021년 공수의 위축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하중원장은 비롯해 관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원서 이재석, 하중원장에게 공수의 위축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향후 1년 간 읍면 분담지역의 가축사육 농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

프리카폐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동물의 진단진료,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예방주사, 질병 예방 및 예방 등 가축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가축질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엄태항 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인용기자



경북교육청, '교과서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지원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비를 전면 무상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교과서비를 내지 않게 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도내 고등학생 64,700여명이 교과서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58억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교과서 대금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고등학교 교과서비 전면 무상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교육형평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류석기자

진주시, 2021년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지원'에 최우선

창원의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청 진주 환원' 추진도 착수

조규일 진주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시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육성과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등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건강도시, 안전도시 진주의 자긍심을 되찾고 새로운 진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감염예방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2020년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견고한 진주형 방역시스템 구축 3차에 걸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시행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의 정부 사전 행정절차 통과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14개 연구소 기업 설립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개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경남도 최초 복지콜센터 개소 진양호 어린이 놀이터, 급호지 생태공원과 도동 셋강 조성 진주-사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진주교, 진양교, 금산교 개량 공사 평가 10호 광장 차로 확장과 가락 정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2021년 시정운영 방향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비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실현 다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조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경남도청 진주 환원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시는 민간외교기관과 양양기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공, 민간병원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특수음압 설비를 갖춘 보건소 24시간 상시 선별 진료소 신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 등을 통해 안전도시 진주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서부경남KTX 완공 이전에 진주에 필요한 문화·산업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KTX의 순기능을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혁신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뿌리·세라믹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실크산업·바이오산업·농업 등 전통 향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조성 실증도시 지정 위성인터넷 운용업체와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뿌리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지원 인센티브 확대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 본격 가동 상평산업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20만㎡ 규모의 제2의 바이오 산업 전용단지 조성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소비가 활기를 찾도록 진주사랑 상품권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착한 선결제' 캠페인, 낮은 수수료의 진주형 민간협력 배달앱 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물조울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강을 중심으로 성북지구와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성북지구에 청년 허브 하우스를 건립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올해 공모 선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지구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진주 문화관광재단 설립해 문화관광 정책 개발 지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추진,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주스포츠타운 체육시설 확충,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금산 송백리 어린이 체육시설 등 권역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청 조정부와 육상부, 진주시민축구단을 적극 지원해 체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진주대점광장, 중영 복원은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남강수상레포츠센터와 소망진산 유등 테마공원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나후된 구)진주역 일원과 철도 부지는 복합 문화예술 공원과 소망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구)진주역 사거리 도로는 안전한 선형으로 개선해 복합 문화예술 공원의 관문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양호 근린공원과 진양호 가족공원은 부지 보상에 속도를 내고 힐링 숲길로 조성되는 진양호반 둘레길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를 지원하고 독립된 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세대 행복기금 125억원 추가 적립, 장학 사업 시행, '청소년 잡패어' 개최, 남부어린이 도서관과 동부 시립 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종합노인센터와 고평자 복지주택을 건립하고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65일 24시간 보육실 운영,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시는 벽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브라보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희망고에서 남강댐 간 자전거·보행 도로 개설, 진양호 우드랜드와 치유의 숲, 월야산 산림레포츠단지과 자연휴양림 조성, 도동 셋강 경관 개선, 도동지역 남강둔치 친수 공간 조성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초전에서 대곡 간,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확·포장,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 개설, 진주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스마트도시 ICT 융합서비스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 인프라 수준을 한층 높인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과 경남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으로 경남의 성장축이 동부권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서부경남은 발전에서 소외되는 형국에 놓였다.

또한 지역의 시의원, 언론, 단체 등에서는 이미 도청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가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나후된 서부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 역할을 위해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 시민들의 100년 숙원을 풀고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6만 진주시민들과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규일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들과 힘을 모아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꿈과 희망의 그림을 하나씩 완성해 가겠다"고 말하며 새 마음 새 뜻으로 시민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열심히 뛰는 진주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남중부 100만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2021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산청-진주 상생협력으로 민물고기 살린다

郡 진양호 물길 덕천강 어도 3곳 개보수 완료

산청군은 진주시와 2020년 상생협력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어도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어도란 물고기가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물길을 말한다. 산청군과 진주시는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은어 등 회유성 어종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생태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도 개보수 사업을 시행했다. 군은 이번 어도 개보수 사업을 통해 진주 진양호로 이어지는 물길인 산청 덕천강의 어도 3곳을 정비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사업시행 위탁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3억7500만원이 투입됐다. 기존 하천에 설치된 보와 댐 등의 인공구조물을 보수하는 한편 어도를 설치했다. 군은 이번 개보수가 산청을 대표하는 회유성 어종인 은어는 물론 낚지와 눈동자개, 미유기 등 지역 수산자원의 보전과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청지역의 원활한 증식으로 지역



경제와 향토음식의 활성화에도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어도정비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25곳의 어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 어도 개보수 사업 이후 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장기 연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진주시와 지난 2018년 10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어도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진양호 및 상류지역에 번식

하고 있는 유해 동·식물에 대한 퇴치사업, 서부경남 주민의 식수원인 진양호 환경정화활동도 공동 추진했다.

특히 자전거도시 진주시와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경호강 100리길 자전거도로·걷기길'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주시가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호강 100리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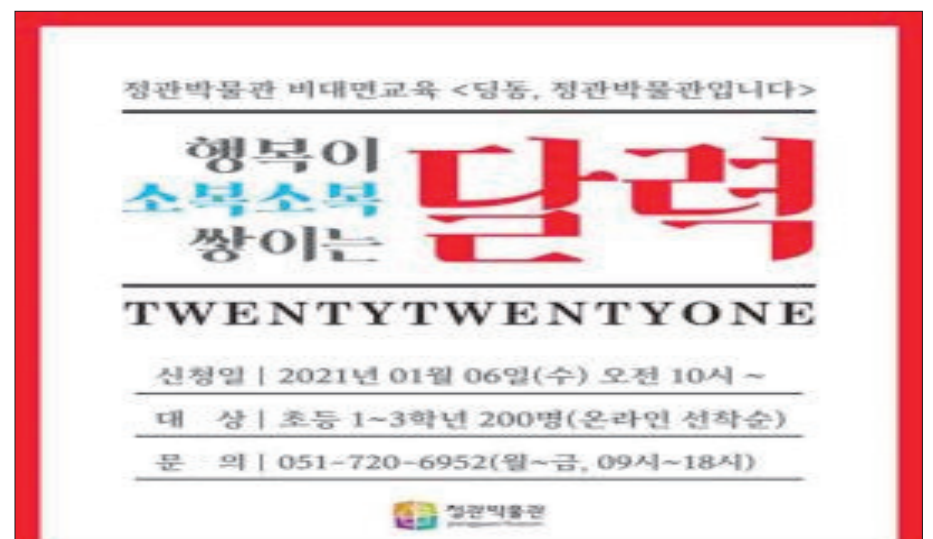
송인용/기자

정관박물관, 8~10세 대상 겨울방학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으로 온 '행복이 소복소복 쌓이는 달력'

부산시 정관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8~10세 어린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2021년 달력을 만들며 심이지 동물과 전통 세시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행복이 소복소복 쌓이는 달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2021년 달력 만들기 활동지가 담긴 교육 꾸러미를 우편으로 먼저 받아본 후 정관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속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열두 띠 동물'과 2021년 '흰 소띠 해'의 의미를 알아보고 달력 속 빈칸을 채우며 주요 절기와 명절에 대한 소개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꾸러미는 아이들이 열두 띠 동물이 그려진 달력을 꾸미며 창의력을 키우고 매일 제시된 사진찍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 가족의 추억이 소복소복 담긴 2021년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박물관 누리집에서 1개



계정당 1조씩 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가족으로 마감된다. 이후, 정관박물관은 1월 12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교육 꾸러미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부하며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3주간 정관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 영상을 공개한다. 한편 교육과 더불어, 교육 꾸러미로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교육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거나 교육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3가

족을 추천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혁 부산시 정관박물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새해 목표를 세우고 추억을 소복소복 쌓는 달력을 만들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전라북도 대중교통 평가군산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선진 대중교통 문화 실현 및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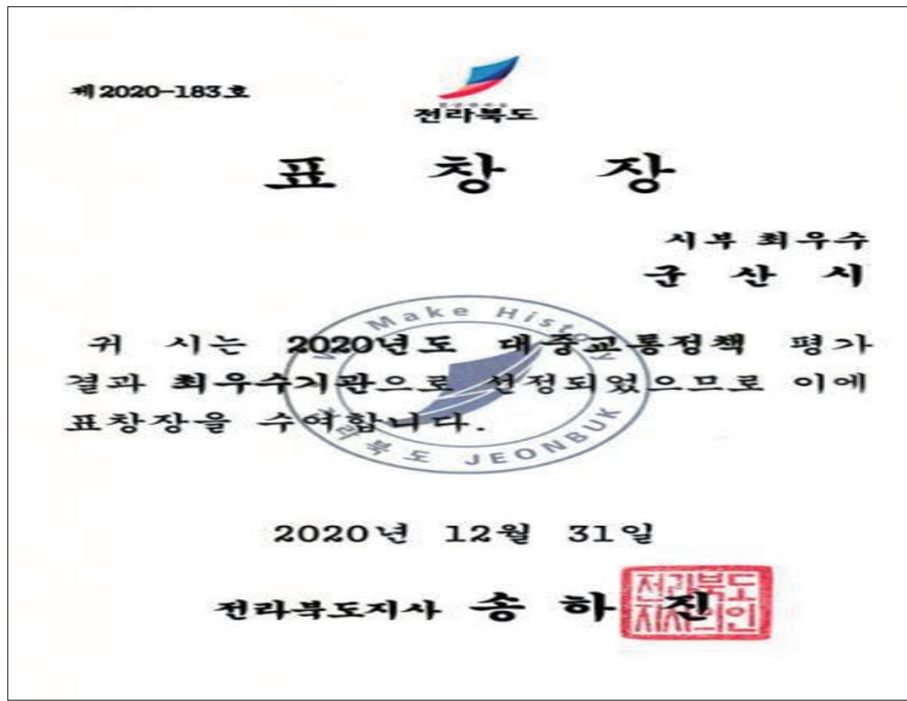
군산시는 전라북도 주관 2020년 대중교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군산시는 버스, 공항, 택시분야 등 선진 대중교통 문화 실현과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투자해 이번 전라북도 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현재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중교통 수단, 시설 등에 홍보, 물품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공항 항공노선 개를 통해 전라북도 도민과 군산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대폭적으로 늘려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파대비 시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선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김갑중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직자들의 대중교통에 이용활성화 및 이용편의 증진 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전라북도 대중교통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전라북도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남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새롭고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전북쌀 '예담채 심리향' 명품쌀로 도약 기대

고품질쌀로 생산해 가공부터 소비까지 품질관리 철저

지난해 첫 출시와 동시에 완관을 기록한 광역브랜드 쌀 '예담채 심리향'이 명품 쌀로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19년 신 품종 향미 '심리향'을 '예담채 심리향'이라는 광역브랜드 쌀로 개발·육종해 지난해 시장에 첫 출시했다.예담채 심리향미는 10kg에 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6개월 만에 110톤을 완관해 전북 쌀의 중저가 이미지 개선에 신호탄을 쏘았다.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소비자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가격이 이전쌀 및 오대쌀과 비슷하다면 구매한다는 의견이 62.5%로 고가 명품 쌀로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다.전북도는 이러한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올해로 2년차로 들어서는 '예담채 심리향'을 더 좋은 품질로 향상해 시장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올해부터 가공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예담채 심리향미를 고품질 쌀의 반열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우선, '심리향' 우량종자를 브랜드 단지에 전량 공급해 재배하고 친환경 단지도 조성해 고품질 쌀로 생산한다.또한 총사업비 24억원으로 심리향 전용 도정·건조·저장 시설을 구축해, 전량 저온 보관하고 완전미 비율을 95%까지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PC에는 품질검사 장비를 도입해 품질기준에 합격한 농가의 비만 수매하고 도정된 쌀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깐깐한 검증을 받게 된다.브랜드관리 위원회에서는 분기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을 무작위로 공공기관에 품질검사 의뢰하는 등 전과정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2kg 소포장 단위를 추가하고 구입 후에도 향 증발 방지를 위해 포장재를 지퍼백으로 개선한다.한편 예담채 심리향미는 명품 향미로 다채로운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온라인 및 대형유통 마트를 집중 공략해 완관을 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도 꾸준히 문을 두드렸다.향미에 흥미를 느낄 수 도권 호텔, 유명 셰프, 대형기업 등에서 호감을 보였고 올해부터 다채로운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

김승일기자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통령상'

자전거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해 노력해온 점 높이 평가돼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으뜸도시로 인정을 받았다.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이 정책 평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에

시상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7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데 이어 3년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자전거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자전거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협력 자문기구인 '자전거 다올마당'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시범학교·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지난 2017년 이후 기린대로 등 2개 노선에 자전거전용도로 11.3km를 확충했으며 장승배기로 등 10개 노선 10km 구간의 노후 자전거도로를 포장해 노면을 개선하고 진출입로도 개선했다.2018년부터는 매년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860여명에게 9억원 상당

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115회 운영해 3,722대의 자전거를 수리하고 헬멧 등 안전용품도 지원하기도 했다.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요즘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전거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시민소통실 2021년 시민을 향한 소통 행정 확대 추진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2021년에도 시민의 생활민원불편사항 해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120억 원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간다.

2020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현장 민원 120만회 봉사대를 운영하며 남원시 구석구석 오지마을을 찾아 총 95회 4,584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고 특히 처음으로 운영한 이동빨래방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23개 읍면동 421개소에 150억원을 투입해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기여했다.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기본 소양교육 '꿈꾸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4개의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정과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

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28개팀에 총 8천만원을 지원했다.또한 민선7기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남원시장과 함께하는 정책대화', '남원시민 원탁회의', '생활현장에 찾아가는 민원마켓'을 추진했다.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을 위해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남원시장과 함께하는 정책대화'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시민소통실은 2021년에도 시민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공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을 향한 소통행정을 한층 더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복구를 시작으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



하게 닿아있는 요소마다 120만회 봉사대와 함께하는 생활민원처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시민의 고충을 실

이남출기자

온두레공동체 예비학교 참여자 모집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예비학교 운영해 사업계획 설정 및 사업예산 등에 대해 안내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21년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을 앞두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비학교에 참여할 회원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온두레공동체는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디딤단계 이음단계 희망단계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공동체 예비학교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전주를 '따뜻한 사람의 도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구분	참여자 및 사업내용	지원 범위
디딤 단계 (1년차)	- 동일 지역(동네, 마을 등) 안에 거주하는 전주 시민 15명 이상 - 지역 문제의 자발적 해결 및 주민 간 소통·교류 사업	- 10개 이내 - 사업비 500만원 이내
	-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주 시민 5명 이상 - 시장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 또는 지역사회 기여와 공동체 수익 연계형 사업	- 35개 이내 - 사업비 300만원 이내
이음단계 (2년차)	- 디딤 단계 완료 공동체 - 발전 잠재력이 높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공동체	- 15개 이내 - 사업비 500만원 이내
	- 이음 단계 완료 공동체 - 발전 잠재력이 높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공동체	- 5개 이내 - 사업비 1,000만원 이내
아파트 공동체	- 동일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 - 아파트 내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	- 10개 이내 - 사업비 400만원 이내

공모사업 접수
접수기간 2020. 12. 28.(화) ~ 2021. 1. 12.(화)
접수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한산구 용왕빌딩3층 29)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ju9301@gmail.com)/접수
연락처 063-281-9319, 9332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운영기간 2021. 1. 19.(화) ~ 1. 29.(금)
주요내용 공동체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컨설팅
연락처 063-281-9319, 9332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1. 1. 28.(화) ~ 2. 5.(토) (일 제외)
접수처 전주시 마을공동체(한태산 5층) 방문접수
연락처 063-281-2486, 5028

홈페이지
전주시청(www.jeonju.go.kr) - 전주소식 - 고시/공고 - 2021사업공고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www.jscc.or.kr) - 공지사항 - 2021사업공고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

김제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접수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 완화 기대

김제시는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을 받는다.대상자들은 주수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1인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가구 5만7000원, 3인가구 6만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지원금은 매월 1일 자동으로 재충전되어 당일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당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반드시 당월에 사용해야 한다.지정된 농협 하나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계란 등 4개 품목만

구입이 가능하며 교통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을 포함한 꾸러미 신청 희망자는 꾸러미 배달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2021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7억 3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박준배 시장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상태 개선 등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산 농산물의 소비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월 11일(월)부터 신청하세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 지원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 1.대상자 중위소득50%이하 가구(초·중·고·대학생·취약계층, 차상위계층)
- 1.1.기간 2021년 1월 - 12월(1년)
- 1.2.대상 채소, 과일, 우유, 계란(구입액 지원50%)
- 1.3.신청처 주수시 읍면동 읍면사무소

농민소득지원부, 전주시농업진흥재단, 김제시

역사민속박물관, 상설전시도록·연구서 발간

‘상설전시도록’, 새롭게 전면 개편한 전시 내용 담겨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020년 새롭게 개편한 박물관 전시내용을 담은 ‘상설전시도록’과 1년 동안의 조사연구 결과물인 ‘1896년 광주 여행기’, ‘광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발간했다. ‘상설전시도록’은 지난 5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재개관한 역사민속박물관 전시의 전면개편 변화상을 담았다. 유물 중심으로 무겁고 학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에서 벗어나 이번 도록은 지도, 사진, 그림, 전시실 내부사진 등을 곁들여 잡지처럼 편하면서 학술적으로도 실속이 있는 책자로 꾸몄다.

박물관 조사연구 결실인 ‘1896년 광주 여행기’는 1896년 전남 신안군의 전신인 지도군의 군수 오형묵(1834~1906)이 쓴 일기 ‘지도군 총쇄록’을 바탕으로 꾸몄다. 여행기는 한강을 출발, 8일간의 항해 끝에 지도에 도착한 과정과 지도에서 광주

방문을 위해 3일간 육로 여행을 했던 경로 등을 밝아 여행에 얽힌 다채로운 일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소개했다. 1986년 전라남도 관찰부 소재지 직후의 광주 모습에 대한 얘기가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로 코로나19로 여행의 즐거움을 잃은 지역민들에게 옛 사람들의 여행과 지역에 숨은 역사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할 기회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은 현재 노동자로 광주에 체류 중인 5명의 외국인의 얘기를 담았다. 광주에는 현재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 책은 그들의 근로조건과 월세 원룸에서의 일상, 월급을 쪼개 모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남은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현실 등을 소개한다. 박물관은 이 책을 내기 위해 1년간 외부의 전문연구자 3명, 몽골어 등 외국어 통역사

5명 등과 함께 작업했다. 두 연구서는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 및 박물관 등에 각각 700부 가량 배포됐으며,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지역 도서관을 통해 책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구종천 역사민속박물관장은 “2020년은 역사민속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전시내용과 시설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조사연구 활동에도 매진한 결실이 책으로 발간됐다”며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온 박물관이 알찬 학술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재개관한 역사민속박물관은 그동안 광주역사의 전시공간이 없어 아쉬웠던 시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30년간 사용해온 박물관의 노후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했다. 특히 박물관이 새로 조성한 광주근대역사실은 광주읍성, 충장로, 금남로 등 세 공간을 통해 광주역사를 산뜻하고 알기 쉽게 소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062-613-5365).

김덕윤기자



신안군 “1004대교 주변 복합쉼터 조성”

익산국토청·신안군, 천사 복합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은 서남권의 랜드마크인 1004대교에 첨단 장비를 갖춘 관리 사무소와 함께 보고 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앞래 오도항 일원에 1004대교를 안전하게 관리할 최첨단 장비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신안군에서는 지역 특산물 및 대표 먹거리등을 판매하는 선걸역 쉼터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천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신안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천사 복합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사 복합쉼터, 천사공원 등에 총사업비 290억원 투입 22년 말 완공되면 1004대교의 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군수는 “1004대교는 이미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고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대교를 넘어 중부권의 ‘퍼플바다정원’ 1004섬 뮤지엄파크 ‘무한의 다리’ 등이 코로나 19시대 새로운 언택트관광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1004대교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업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식기자



전남도, ‘해양환경 보호’ 민간단체가 앞장선다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 지원사업 1월 12일까지 공모

전라남도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다. 공모 기간은 1월 12일까지로,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이다. 공모 대상은 전남도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에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비롯 해양보전 홍보활동, 해양환경 조사·연구·교육 등이 해당된다. 사업을 희망한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양보전팀(061-286-6853)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

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의 지역발전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월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전라남도가 운용중인 보조금 지원 사업에 이종으로 참여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개 민간단체에 2억 원을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해양쓰레기 제로화 캠페인 영상 제작·홍보, 해양환경 보전 심포지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매년 해양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해양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공모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아카이브 구축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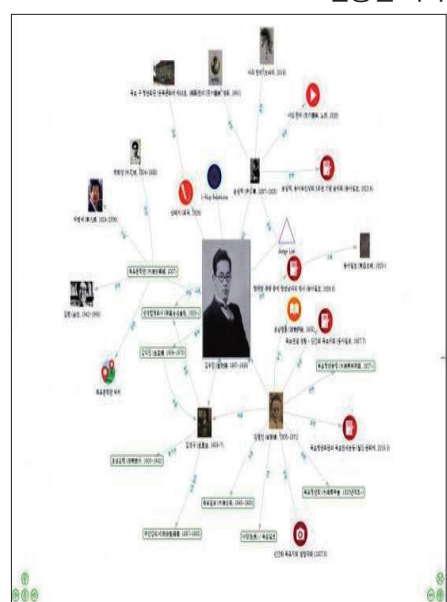
인물, 사건 등 유·무형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토대 마련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인적·물적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다. ‘목포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과업 수행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로 관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물, 사건, 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초조사, 공간내 건축자산에 대한 실측조사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주요 과업 수립을 목표로 원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추진한다.

향후 정리된 자료는 온라인상으로도 공유해 비대면 시대에 맞춰 관심 있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아카이브 구축 첫 단계로 목포에서 활동한 인물을 선정한다. 인물선정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인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되며 선정된 인물을 토대로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에서 활동했던 각종

단체, 장소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발굴된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은 상호 연계되는 대상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자원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브 구축 용역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목포 근대문화유산을 일원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목포시는 무수한 근대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해 향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100년의 미래가치로 보존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만70세 이상 운전자에 배려스티커 배부



양보운전으로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기대

광주 동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운전 중 배려 양보’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2019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어 차량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를 인지시켜 양보운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르신운전 중 배려 양보’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스티커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교통과를 방문하면 배부 받을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고령운전자께서는 반드시 스티커를 배부 받아 부착하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홍성군,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발표

꼼꼼하게 챙기세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27개 제도·시책

홍성군은 새해를 맞이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1년 신축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제도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27건이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이 구축된다. 세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람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1월부터 카카오톡 채널 '홍성군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신청대상범위가 6월부터 확대된다.



중전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도 다양해진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다. 만6세~65세 미만 심한장애인이 보호자 단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되어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교통안전용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농산경제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그동안 대상자가 지원금액에서 자기부담금 15%를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기부담

고정화기자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글보글

중천철학도서관, SDGs 원주북클럽 그림책 85권 유튜브 소개

중천철학도서관은 2021년 새해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SDGs 원주북클럽 그림책 85권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1월 5일부터 유튜브 채널 '중천학당'을 통해 서비스한다. SDGs란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다.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 등과 함께 17개 목표에 맞는 85권의 그림책을 선정해 SDGs 원주북클럽 소개 책자를 제작했다. 이삼희 작가가 책 추천을 맡아 시민들이 그림책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다. 중천철학도서관 관계자는 "SDGs 원주북클럽에 소개된 그림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고 17개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어 학교, 도서관, 교육문화기관에서 책읽기와 독서토론에 활용하기 편리하다"며 "많은 관심과 함께 '중천학당' 유튜브 채널 구독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체육회, SG삼성조은병원·더조은치과와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체육회 관련 의료지원, 병원비 감면 혜택, 기관 홍보 등 추진

천안시체육회와 SG삼성조은병원·더조은치과가 지난 1월 1일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천안시체육회 한남교 회장과 SG삼성조은병원 박형석 병원장, 더조은치과 신수정 대표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간소한 업무협약을 맺고 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체육회 관련 의료지원, 체육회 관계자 병원비 감면 혜택, 기관홍보 및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지원,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삼성조은병원은 천안시체육회 관계자에게 종합건강검진 특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천안시 불당

동에 위치한 SG삼성조은병원은 지난 11월 충남 최초 보건복지부 재활 의료기관으로 인증된 병원이다.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전문 진료와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검사진료 그리고 128채널 CT 간경화 검사가 가능한 MRI, UHD급 내시경과 초음파 등 최신장비는 물론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센터, 재활치료센터, 155병상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이다.

또한 같은 곳에 위치한 더조은치

김원호기자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야 건강할까?

중평균, 건강랭킹 전국 군 단위 8위, 간암 발병은 최저

중평균이 병원·의료컨설팅회사 엘리오앤컴퍼니가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지자체 종합 '건강랭킹'에서 전국 83개 군 단위에서 8위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6대 암, 당뇨병, 고혈압 환자수, 1천명당 의사수 등 25개 지표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 결과 중평균은 종합점수 59.4점으로 전국 83개 군 단위에서 8번째, 충북도내 10개 군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간암 환자수는 전국 군 단위 평균인 273명보다 무려 2배 이상 적은 114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장암 환자수 7위 폐암 환자수 9위를 비롯해 당뇨병 환자수 5위 고혈압 환자수 5위를 차



지해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인했다. 또한 1년 중 병원에 안가는 날을 의미하는 건강일수에서도 전국 평균 116.6일보다 많은 169.2일로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성열 군수는 "이번 평가로 중평이

도내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건강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보령시,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올해부터 자체 예산 편성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보령시는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 태권도·검도·에어로빅 등 다양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용자의 자부담금 발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스포츠 체험기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범죄 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만 5세 ~ 18세까지의 유아와 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보령시 교육체육과(성주산로 77)를 방문해서 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9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을

과와 종목수혜가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문화·체육 향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최만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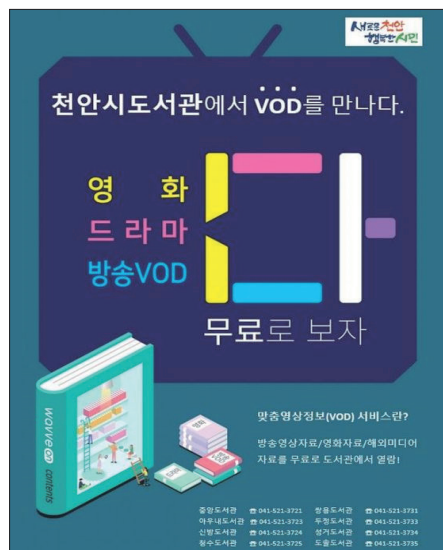
천안시 도서관, VOD 서비스 도입

영화, 드라마, 방송VOD를 도서관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

천안시 중앙, 쌍용, 신방, 두정, 청수, 도솔, 아우내, 섬거 8개 도서관은 지난 2일부터 디지털자료실에서 VOD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DVD 자료를 대출해 DVD 플레이어와 TV를 보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VOD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최신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고 각 도서관의 디지털자

료실에 방문해 1인 2시간 30분 범위 내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 뒤 간편하게 PC나 TV모니터로 해당 VOD를 시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보유중인 DVD에 대해 관내·외 1인 2개까지 대출하는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VOD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DVD 자료의 제한적인 출시, 보관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VOD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 접속만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김돈곤 청양군수 "원팀 되어 코로나19 극복" 제안

4일 오전 영상 시무식...지역발전 위한 새해 설계 발표

김돈곤 청양군수가 4일 "청양군민 모두가 원팀"이라며 "최선을 다하는 경기력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조직력으로 코로나19 상황과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 영상 시무식을 갖고 "도모하는 모든 일이 기대보다 더 잘 풀리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는 덕담에 이어 우보만리와 우공이산 두 가지 사자성어를 올해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어 김 군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청양발전의 신기원을 쓰기 위한 새해 군정계획을 발표했다. 김 군수가 발표한 계획은 농업의 생산적 변화와 통한 경쟁력 강화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 '따뜻한 희망 공동체' 군정 전개 의욕적 청년정책 추진 군민이 군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행정의 모든 문 개방 등이다. 김 군수는 또 민선7기 이후 예산 확보 상황과 지방공공기관 유일



청렴도 1등급 기관 선정 등 30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청양군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고통자복지주택 윤택한 추진시대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고 푸드 플랜과 주민자치는 행정안전

부와 전국 60여 지자체가 이미 벤치마킹을 다녀갔을 정도로 모범사례로 통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끝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인내의 큰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농업회사법인 SP 한승용 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능성 먹거리 특허 주목

유산균 활용 발효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획득...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 마련



부안군 행안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SP 한승용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능성 먹거리를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승용 대표가 발명한 기술은 발효김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지난해 12월 17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서를 받았다. 이번 기술은 유산균을 활용해 김 원초를 발효시켜 김을 제조함으로써 김의 항산화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능성·저장성 및 기호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발효 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밥반찬으로 즐겨먹는 김은 김 원초를 이용해 제조되는데 김 원초는 '해태'라고도 하며 바다의 압초에 이끼처럼 붙어서 자란다. 김 원초는 길이 14~25cm, 나비 5~12cm이고 몸은 긴 타원 모양 또는 줄처럼 생긴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으며 몸 윗부분은 붉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파란빛을 띤 녹색이다. 김 원초는 해조류 중에서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도 풍부한 식품이다.

실제 김 원초의 비타민A 함량은 감자보다도 훨씬 많으며 비타민B12 함량도 타 식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비타민B12는 뇌신경 영양물질로 야채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건조 김 3매 섭취로 1일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 또 김 원초는 인지질이나 콜린의 함량이 있어서도 타 식품 해조류보다 훨씬 높으며 미역과 비교했을 때 김 원초에는 약 3배 이상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이 김에 녹차와 표고버섯, 물로키아 등 다양한 식품을 첨가해 기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 원초만을 이용해 영양성 등을 높이는 식품에 대한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승용 대표는 유산균을 활용해 김 원초를 발효시켜 김을 제조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이는 천연미생물로 가금류 면역력 증강 제품, 축산농가용 약취제거살포제 등을 개발해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SP 한승용 대표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특허기술의 핵심인 유산균은 글루코코스 등 당류를 분해해 젖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을 말하며 다른 미생물과 비교적 잘 공존·공생하는 특징이 있다. 포유류의 장내에 서식해 장균에 의한 이상 발효를 방지해 정장제로도 이용되는 중요한 미생물이다. 이러한 유산균은 장내 이상발효의 개선, 장내 정상 균총의 유지, 장내 부패균에 의해 생성

되는 독성물질 무독화 작용, 설사·변비 개선 이외에 면역기능 강화 및 항암효과 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유산균의 정기적인 이용에 따라서 동물과 사람에게 폴리스테롤과 지방저하 작용이 나타났음도 밝혀졌으며 젖산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젖산에 의해서 병원균과 유해세균의 생육이 저지되는 성질이 있어 식품제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승용 대표는 이러한 김 원초와 유산균의 우수성 및 기능성을 인식하고 김 원초를 전처리하는 전처리 단계, 전처리된 김 원초를 세척하는 세척단계, 세척된 김 원초에 유산균 혼합물을 첨가해 발효시켜 김 발효물을 얻는 발효단계, 김 발효물을 성형시키는 성형단계 및 성형된 김 발효물을 건조시켜 발효김으로 제조하는 건조단계를 포함하는 발효김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 획득했다. 유산균 혼합물은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리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중 2종 이상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유산균은 면역강화와 유해균 억제, 장내 적절한 미생물 균형 유지, 항암효과, 정장작용 및 소화작용, 혈중콜레스테롤 저하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승용 대표는 "이번 특허기술은 유산균을 활용해 김 원초를 발효해 발효김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며 "품질이 우수한 부안의 김 원초를 이번 기술로 가공·판매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하고 안전한 기능성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경남소방 창설 28년 만에 첫 여성 소방서장 탄생

“소방 통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에서 안전정책 펼치겠다”



경상남도 내 첫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경남소방 창설 28년 만에 첫 발자취이다. 새해 1월 1일자로 취임하는 박정미 신임 양산소방서장은 84년 12월 소방사 공채로 입문했다. 이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팀장,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양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을 두루 거쳐 20년 1월 2일 경남소방본부 최초 여성 소방정으로 승진했으며 1년간 소방본부 예방과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본부 부임기간 중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79억 1천만원 확보해 전국 최초로 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신설해 도민의 생활속 안전상황을 더욱 향상시키기도 했다. 또한 도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경남도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총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수요 해소를 위해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며 비대면 소방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예방업무와 교육홍보 분야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인정받아 2020년 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불조심 어린이 마당 전국대회 1

등을 소방청 우수 누리소통망 콘텐츠 안전을 책임지게 될 박 소방서장은 "양산시민들이 소방을 통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책임을 다하는 도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늘 시민중심에서 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해탈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도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광용/기자

5000시간 봉사왕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오르다

동대문구, 누적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업적 기리는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동대문구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을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했다.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은 누적 봉사 시간 5,000시간 이상인 봉사왕들의 활동을 기리고 널리 알려 봉사 활동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구는 이번에 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봉사를 묵묵히 진행해 온 2019년 봉사왕 8명, 2020년 봉사왕 4명 등 총 12명을 명예의 전당에 등재했다. 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고 대신 명예의 전당에 봉사왕 한 명씩 초창해 표창장을 전달하고 구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5,027시간이 넘는 봉사 시간 동안 돈의문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체험 안내 봉사를 해 온 이민산 봉사자는 이번에 표창장을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받게 돼서 부끄럽다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

을 계속하겠다"고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동대문구 자원봉사자들은 올해 전 세계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바쁘게 보였다. 공공 마스크 부족으로 고통 받는 소외 계층을 위해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집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밀반찬 나눔도 꾸준히 진행했다. 반려 식물 나누기, 면역력 증강을 위한 한방 쌍화차 나누기, 따뜻한 목도리 나누기 등을 소규모, 비대면으로 꾸준히 이어가며 동대문구 곳곳에 따뜻한 봉사의 온기를 전달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힘든 이웃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세상을 비추는 자원봉사의 작은 불꽃들이 명예의 전당 봉사나무에 피어날 수 있도록 동대문구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옥천군청 여직원 친목 단체, 목련회 행복나눔과 이웃사랑 실천

충북 옥천군 공무원 동호회 중 하나인 목련회 회원들이 새해를 맞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행복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목련회는 지난 3일 코로나 19 탓에 회장인 윤은영 안남면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여해 안남면의 한 독거노인 가정에서 내외부 거미줄 제거, 청소 등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윤은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연말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조촐한 봉사활동을 가졌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르신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만은 온전히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수능시험장 간식 제공, 생산적 일손봉사, 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을 함께하며 뜻깊은 베품을 하는 동시에 회원들 상호 간 친밀한 교감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군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친체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곳곳에 사랑과 행복을 전파하고 있다. 윤은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연말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조촐한 봉사활동을 가졌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르신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만은 온전히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성 있는 콘서트-위로' 성황리 개최...음악으로 개성공단 재개 향한 국민 염원 모아

음악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도민의 마음을 모으고 감사와 격려 전해

음악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개성 있는 콘서트-위로'가 지난 29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O마이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대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노래패 우리나라, 노래극단 희망새, G브라스 앙상블이 출연했다.

출연진들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보탠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날이 오면', '백두산에 올라', '백두에서 한라산 내 조국이다' 등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줬다. 이날 영상축사를 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인 김영진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촉구결의안 등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재개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 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개성이 열리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첫 시작이 개성공단 재개인 만큼, 내년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간 디엔지 내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 설치 추진,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3보1배, 전문가 토론회, 개성 있는 콘서트 개최 등 개성공단 재개와 결속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11월 10일부터 43일간



운영된 임진각 현장 집무실에는 약 120여개 기관·단체 350여명이 격려방문을 통해 지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도는 이 같은 성황에 힘입어 민관 협력을 통해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 범국민적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를 새해 1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최정근기자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기획전 '오래된 극장 2020' 개최

추억의 명화가 건네는 따뜻한 위안과 깊은 여운

부산시는 영화의전당에서 시네마테크 기획전 '오래된 극장 2020'을 오는 1월 21일까지 상영한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수영만에 있던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시작돼, 올해로 열두 번째 개최되고 있는 '오래된 극장'은 겨울에도 추억과 감동의 명화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깊은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오래된 극장 2020'은 전설적인 흥행작 '벤히와'와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위대한 거장인 '윌리엄 와일러'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는 초기 명작을 소개하는 '젊은 윌리엄 와일러' 감금된 여인

이라는 모티브에서 출발해 걸출한 영화적 성취에 이른 작품을 선보이는 '감금된 여인' 시인이 주인공이거나 시적 감흥 자체가 영화 감상에 흥미를 선사하는 '영화가 사랑한 시인들' 등 3개 섹션에서 총 20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젊은 윌리엄 와일러'에서는 공작부인 이 세 사람 제저벨 편지 작은 여우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등 6편의 작품이, '감금된 여인'에서는 레베카 가스등 포획 블루 벨벳 피아노 감금된 여인 등 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사랑한 시인들'에서는 오르페오 프만의 이야기 닥터 지바고 석류의 빛깔 일 포스티노 토탈 이클립스 패터슨 등 8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남궁영기기자



남이웅 초상 일괄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조치원 관음암 소장 지장시왕도·현왕도 등 2점도 문화재자료 지정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남이웅 초상 일괄과 조치원 관음암에 보관된 지장시왕도와 현왕도 2점 등 3건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이웅 초상 일괄'은 중국과 조선에서 각각 제작한 초상화 2점과 초본 2점, 초상함 1점 등 총 5점이다.

남이웅은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 17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조선 중기 대표적인 문인이다. 남이웅 초상 일괄은 명나라 말 중국 초상화법과 17~19세기 조선시대 초상화법의 변모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회화자료로 초상화의 형식과 표현법에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치원 관음암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왕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및 판관 등을 배치한 간략한 형식이나, 강한 바탕질의 음영기법과 밝은 청색 사용 등 20세기 전반 특징이 잘 남아 있

다. 특히 조치원 관음암 현왕도는 적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고 명도가 높은 밝은 청색을 사용한 점, 풍대가 늘어진 대좌의 형태 등에서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충청지역 불화의 화풍을 볼 수 있다. 또, 면류모 장식한 화려한 일월관과 파초를 들고 있는 현왕의 모습은 다른 현왕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관음암 소장 '지장시왕도'와 '현왕도'는 화기를 통해 봉안장소, 화승, 시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의 불화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지만 세종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이 자신만의 불교 지식을 바탕으로 불화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질복 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세종시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안산 원로화가 장성순 화백, 개인전 '추상, 그 집념의 회화 세계' 개최

내년 1월 5~21일 상록구 소재 갤러리 스틸에서...작품 22점 전시

안산시는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이자 추상화의 대가 장성순 화백의 개인전 '추상, 그 집념의 회화 세계'가 내년 1월 5일부터 1월 21일까지 상록구 소재 갤러리 스틸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장성순 화백은 한국 추상화의 중심이자 안산시를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2017년 안산시에 그의 평생의 역작 207점을 기증했다.

시는 이러한 장 화백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단원미술관에서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모더니

스트 장성순, 삶은 추상이어라'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추상, 그 집념의 회화 세계' 전시작품은 총 22점으로 과감한 붓 터치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장성순 화백의 추상표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 공개된다. 서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색채에 중점을 둔 작품을 통해 내면과의 싸움으로 자아를 증명하는 화백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위해 삶을 영위하는지 잊어버린 현대인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부기자



즐거운장기도서관, 신나는인문학 '히히락락인문학-영화편'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이 원은정 작가와 함께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히히락락 인문학-영화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기도서관 '히히락락 인문학-영화편' 프로그램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토대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삶과 연결해 성찰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ZOOM을 통해 비대면 강좌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원은정 작가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부모의 인문학 질문법', '엄마는 알까?',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등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히히락락 인문학-영화편'을 통해 김포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영화 속 삶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주제는 1주차 영화 '왕이 된 남자, 광해'를 토대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2주차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와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해석의 힘, 3주차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를 통한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나를 만든다, 4주차 영화 '꾸뻬씨의 행복여행'과 행복에 대한 나만의 정의의 찾기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전화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기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새해에는 도서관과 함께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개미와 애기똥풀이 들려주는 생태이야기

화성시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생태동화책 발간

화성시 시립 반석산에코스쿨이 두 번째 생태동화책 '우리 친구하자'를 발간하고 1월부터 전자책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생태동화책은 반석산 에코스쿨 생태교육강사들이 글 쓰고 동아리 '동심'의 김혜신 회원이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미와 애기똥풀이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공생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화책은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책 서비스 또는 에코스쿨 전자책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아이들이 생태와 자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재미있는 글과 창의적인 그림으로 제작했다"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도 소중하다는 것을 동화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부산시, (주)엔에프에 35억원 지원... 272억원 신규투자 창출

“투자 마중물로 기업 대규모 신규투자 끌어낸다”

부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5억원을 확보해 (주)엔에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 지원 비중이 높고 건축설비비 일부는 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심의회 최종 통과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엔에프는 산소공급 시스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감소기업이다. ‘Saving Lives’ 실현을 신조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됐다. 의료용·산업용·가정용 등 다양한 산소공급 시스템을 개발, 제품군이 20여 종에 달하며 최근에는 헬스케어 분야로 비즈니스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엔에프는 2020년 6월부터 272억원을 투자해 부산 기장군 신소재산업단지 내 건물연면적 7,329.46㎡ 규모 제2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1월 중 1단계 제조시설을 가동하고 2022년 7월에 모든 시설을 준공할 예정으로 8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기존 사업장 건물연면적 대비 5배가 넘는 시설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생산공정에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

조원가를 낮춰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엔에프의 주력 제품인 의료용 자동산소공급시스템은 병원에 비치되는 충전식 고압 산소통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24시간 365일 무정지 연속 가동 성능과 고순도 산소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 중앙집중식 산소공급시스템으로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산소 배관에 연결하는 형태다. 고압 산소통 대비 경제성과 편리성, 안전성, 확장성 등이 뛰어나다. 이 제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의료보급수급에 반영되지 않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위주로 판매됐으나, 2019년 2월 엔에프의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국내 최초로 의료보급수가 반영이 확정됐다. 이에 더해 엔에프는 사물인터넷 기술까지 접목해 산소공급 관리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엔에프의 의료용 판매 시장이 대학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4천여 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 사업장용 등 헬스케어 시장 역시 성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엔에프는 힐튼·매리어트·포시즌스 등 호텔, 삼성·SK·카카오·부산은행 등



유수의 기업, 대학·교육청 등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영업력을 확대해 가정, 어린이집, 학교, 사무실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12개 국가와 2천8백만 달러 규모의 총판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미주·유럽 시장으로도 수출 판로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에프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대기업, 일본 상장기업 등으로부터 연이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엔에프와 같이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지역

특성화업종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업종은 부산시 전략산업, 부산형 뉴딜사업 등을 고려해 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50개 업종으로 엔에프가 속한 헬스케어를 포함해 조선기자재, 파워반도체, 방사선·의과학, 미래차, 게임산업, ICT·S/W 등이 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산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로 지원한다. 만약 건축설비비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 별개로 10억원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올해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끌어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최광용/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비대면 수출 강화 중소기업 총력 지원”

용인시, 지난해 160억 달러 수출...2015~2020년 도내 1위 · 2020년 전국6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년 연속 도내 수출 1위라는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도록 올해도 적극 지원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관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2019년 157억달러 대비 1.6% 증가한 160억 달러를 수출해 2015~2020년 5년 연속 도내 1위, 전국에선 6위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에선 1762사가 수출했는데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거둔 기업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50곳으로 100만달러 이상은 74.8% 증가한 235곳으로 확인됐다. 수출금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1843곳보다 19.8% 감소한 1477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 강화를 돕기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를 목표로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연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원스톱 애로 해소 등 3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시·도비를 포함한 10억2650만원을 투입하며 400여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기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해 해외 네트워킹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 11곳에 바이어 발굴과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을 지원한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플루언서를 모집, 관내 중

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고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해외규격인증을 받도록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을 펼친다. 관내 수출품목의 대다수인 전기전자제품과 성장세가 두드러진 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의 판로 개척을 위해선 전시회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원하는 45곳엔 참가비를 지원하고 상·하반기 1회씩 국내 유명 전시회에 관내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 공동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판로 개척을 원하는 30곳을 위해선 해외 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거나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구축한 연택트 수출상담실도 본격 가동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10개 기업씩을 모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연다. 수출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해선 기관별로 산재된 수출지원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업무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지난해엔 수출자문위원 컨설팅 등으로 156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다. 또 관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한 시민 통역 서포터즈를 연계해 주고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수출무역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와 별개로 시는 비대면 수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온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새해에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출 활성화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총력을 다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황규석/기자

강동구, 대외기관 평가공모사업에서 총 702억 확보

올 한해 98개 분야 수상·선정으로 총 702억 7천만원 재원 확보

강동구가 올 한해 동안 각종 대외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총 98개 분야에서 수상실적을 거두어 702억 7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받은 성적은 장관상만 17개, 언론 등 민간기관상 11개, 국제상 2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2개 등 가히 역대 최고라 할만하다. 올해 강동구는 수상 분야에서 양적 성장도 했지만, ‘CSV 포트’ 창조혁신상,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정부혁신 부문 은상 등을 수상했다. 이로써 ‘창조·혁신’ 분야의 뛰어난 성과를 입증하게 됐다. 아울러 노후 청사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받게 된 ‘아시아 도시경관상’, 10회 연속 수상의 ‘대한민국 환경대상’, 대상의 영예에 빛나는 ‘푸른도시 서울상’, 넷제로 에너지마루 사업으로 받게 된 ‘생활SOC

공모전’, ‘지방자치 정책대상’ 등 강동구만의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들이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빛을 받았다. 강동구는 기존 시설에 공유와 혁신을 더한 ‘강동형 공간복지’ 정책으로 동아일보와 채널 A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간복지 구현을 위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로 꼼꼼히 챙기고 경관, 건축 등 각 분야에 과감히 도입한 민간 전문가 참여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여성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기부채납 방식으로 6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역세권 청년주택’, ‘골목길 재생’,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등 공모사업 선정액 35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702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정장 취임 이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포용과 혁신, 공간복지 실현을 구호로 굳은 땀방울을 흘렸었다. 앞으로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

반산업단지 조성, 지하철9호선 4단계 착공, GTX-D 노선 확정 등으로 2023년 55만 강동구 시대를 충실히 준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쁜 소감을 전했다.

황규석/기자

www.yyg.go.kr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명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고랭지 영양에실찬사과 · 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 피부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19m 영양수박 · 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제스 · 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성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귤 · 펴으로 기른 영양임태배

반환점 돈 '바람피면 죽는다' 조여정-고준, 2막 관전 포인트

충격적인 '비밀X진실' 새로운 인물의 등장 '3단 콤보' 예고

조여정-고준 주연의 '바람피면 죽는다'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안방을 사로잡고 있다. 배우들의 열연과 촘촘히 짜여진 스토리 전개,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을 '추리의 세계'에 빠져들게 만든 '바람피면 죽는다'. 이번 주 시작될 2막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공개돼 기대를 끌어올린다.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가 심장을 바짝 조여오는 미스터리한 전개로 반환점을 돈 가운데,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이 밝혀지며 안방을 뒤흔들 '2막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2막 핵심 관전 포인트 1. 조여정-고준-연우, '아슬아슬한 관계'의 결말 어떻게 될까? 범죄 소설가 아내 강여주와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 한우성의 아찔하고 공포스러운 밀당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 남편' 우성의 바람 때문. 우성은 여주의 의심을 눈치채고 자신의 '바람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7-8회에서 여주는 우성이 쓰레기통에 버린 '만년필 상자'의 향기와 상자 속 메시지를 통해 그의 바람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증거 찾기에 나섰다.

마침내 여주는 그 주인공이 서연대 여대생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내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정치 입문을 위해 서연대 강의에 섰던 우성과 미대생 고미라는 첫 만남 이후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며 두 사람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여주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여주와 우성 그리고 미래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2막 핵심 관전 포인트 2. '백수정 살인사건'의 진범 찾기. 흥미로워진 경우의 수 백수정은 한류스타 출신으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후 아침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다. 과거 여주 때문에 자신이 미국으로 쫓겨났다고 믿는 수정은 그녀에 대한 복수를 위해 여주의 남편인 우성을 유혹해 내연 관계로 지냈다.

그러나 돌연 실종이 된 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다. '백수정 살인사건'을 맡은 형사 장승철, 안세진은 진범을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앞서 매니저 김덕기, 여주, 우성 등 수정의 주변 인물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으나 여전



히 진범의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며 진범을 찾기 위한 예측불가 '경우의 수'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다. CCTV 영상으로 우성을 협박하던 수정의 오피스텔 관리 소장 배정식이 납치되고 생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풀려난 사실이 밝혀지고 그 납치범으로 매니저가 지목됐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해 버린 상태. 지난 7회에서 여주가 매니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모습과 8회에서 국정원 과장 마동균이 사람을 시켜 매니저를 찾는 모습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을 대 혼란에 빠트렸다. 이처럼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과연 '백수정 살인사건'의 진짜 진범은 누구일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2막 핵심 관전 포인트 3. '비밀의 중심' 조여정, '설목 여주'의 숨겨진 과거X진실 '바람피면 죽는다' 속 비밀의 중심에는 여주가 있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 속 백수정과 국정원 마과장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녀의 책 '비밀기도실'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시청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과장으로부터 여주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주의 어시스트로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 차수호는 전임자들을 찾아가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는 모두가 마과장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마과장이 여주에 관한 모든 사항

들을 의문의 인물에게 보고하는 모습과 여주의 과거를 쫓는 수호에게 검은 그림자가 붙은 모습도 공개됐다. 특히 8회 엔딩에는 수호의 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인물이 수호를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까지 그려지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과연 여주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을지, 그 안에서 많은 인물들과 어떤 관계로 엮인 것인지 궁금증을 더하는 가운데, 9회부터 시작될 2막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 예고돼 더욱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2막이 시작되며 여주를 둘러싼 인물들 사이 '비밀의 장막'이 벗겨진다. '백수정 살인사건'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며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휘몰아칠 반전의 '바람피면 죽는다' 2막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타일 면으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과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서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최재은/기자

배우 김영광, 2021년 '열영광' 행보 '여심 무장해제' 나선다

2월 방영 예정 드라마 '안녕? 나야'가 그 시작 한도초과 '멋뽀' 폭발

배우 김영광이 2021년 '열 영광' 행보로 여심 무장해제에 나선다. 오는 2월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의 주인공 한유현 역을 시작으로 '멋뽀'를 폭발시킬 예정이다. 김영광의 소속사 와이드스튜디오는 4일 새해를 맞아 지난 2020 KBS 연기대상 인기상 시상자로 나선 그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걸쳐 방송된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참여한 김영광의 온-오프라인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판타지 성장 로코 '안녕? 나야'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배우 최강희와 시상자로 나서 드라마 홍보에 팔을 걷어 부쳤다. 별케 슈트도 갈출 수 없는 비올과 키, 넓은 어깨가 눈길을 사로잡는 가운데 진중한 시상식 때와 달리 대기실에선 자연스러움이 한껏 묻어나는 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막 찍어도 멋짐이 폭발한 그의 사진 속에서 남성적인 향기와 함께 감출 수 없는 배우의 향기가 묻어났다. 의미 있게 1월 1일 KBS 연기대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2021년 드라마 라인업으로 공개된 '안녕? 나야' 티저에서는 그의 '천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었다.

김영광은 극중 재벌 3세 한유현 역을 맡아 자신의 전대특허인 '로맨스'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골드스폰이지만 철이 한 스펀 없는 캐릭터로 성장을 보여줄 예정이며 클



내와 능청스러움을 오가는 '파랑새 연하남' 활약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티저에는 한도초과 멋뽀가 폭발하는 품쟁이 한유현이 갑자기 철창 신세를 지고 '감옥 동기'로 만난 반하니에게 갑자기 '생명의 은인'임을 강조하며 요망스러운 표정으로 '빈대'를 붙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호기심을 끌어올렸다. 스펙터클한 에피소드를 예고하며 티저는 공개와 동시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안녕? 나야'를 시작으로 김영광의 2021년 열일 행보가 이어질 것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그는 드라마 뿐 아니라 광고 분야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안녕? 나야'를 비롯해 다양한

연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2021년을 알차게 보낼 예정이다. 김영광은 그동안 '굿닥터', '피노키오' 등 드라마와 '너의 결혼식', '원더풀 고스트' 등 영화를 넘나들며 주연 배우로 성장하는 탄탄한 필모그라피를 쌓아왔다. 범접할 수 없는 모델 포스를 풍기지만 최근 출연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조카 바보의 모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김영광. 그가 이번 '안녕? 나야'를 시작으로 어떤 반전을 이뤘는지, 2021년 열일 행보를 예고한 그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순희/기자

"이재원, tvN '철인왕후' 최고시청률 14.7%, 등장만 하면 '꿀잼각' '케미요정'의 #충심 #삼각로맨스 #우정"

이재원, '한양 코스프레'부터 '자칭 매력남'까지 독보적인 캐릭터 구축

배우 이재원이 tvN '철인왕후'의 귀여운 '자백남'으로 화수분 같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tvN '철인왕후'가 신박한 로맨스와 개그 코드로 매혹적인 시청률을 달성, 지난 3일 방송된 8회는 수도권 기준 평균 13%, 최고 14.7%의 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이재원이 등장만 했다 하면 폭소를 선사하는 하드캐리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재원은 극 중 '홍별감'으로 분해 '한양 코스프레'와 자신을 '궁 내 매력남'으로 칭하는 철면피스러운 면모를 통해 독보적인 캐릭터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 '꿀잼'같은 철종의 절친으로 궁 내 '꿀보직'이라는 어영청의 별감으로 지내며 '귀찮지만 나라는 구해야 하니까'라는 태도를 일삼는 동안 얼핏 보면 한량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몰래 관리들의 비리를 척결하려는 철종의 작전을 함께하고 있다. 홍별감은 비밀리에 철종의 정치 생활까지 도우며 위기 상황이 닥치면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자연스럽게 상황을 모면하는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별감의 자화자찬과 자백 코드가 눈에 띈다.

"나인들이 뽀는 궁 내 매력남 다



섯 손가락 안에 드는"이라는 말로 자기소개를 하던 그가 흥연과 부딪힌 후 도포를 휘날리며 손수건을 건네는 장면은 특히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홍별감에게 반해버린 흥연의 모습이 그려지며 흥연을 연모하는 김환과의 삼각 로맨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김환과의 우정도 관전 포인트다. 홍별감은 밤마다 예장 집무실에서 몰래 술자리를 가지며 우정을 다지던 김환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소식에 "자네 이리 해폰 사내였나?"며 질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이재원은 '홍별감'의 능청스러운 개그 코드와 화려한 오버액션까지 찰떡같은 캐릭터 소화력을 발휘, 각 등장인물들과 다양한 케미를 완성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철인왕후' 속 '케미요정'으로 등극한 이재원에게 '홍희빈'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등 날로 더해지는 '홍별감'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암행어사' 배우 권나라, 천의 얼굴 흉다인 '입덕 유발'

4단 변신 스틸 공개 여사대 홍일점→꽃도령→매운맛

'암행어사' 배우 권나라가 매회 변신을 거듭하며 매력 터지는 조선판 부캐 부자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본캐인 여사대의 홍일점 다모부터 매운맛 기녀, 너스레 갑 주모까지 멀티 캐릭터로 활약하며 안방 시청자들의 입덕을 유발하고 있다. 에이맵프로젝트 측은 4일 KBS 2TV 월화드라마 '암행어사'에서 여사대의 홍일점 흉다인으로 열연 중인 권나라의 입덕 유발 4단 변신 스틸을 공개했다. '암행어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에 맞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왕실의 비밀 수사관 암행어사와 여사단의 통쾌한 코믹 미스터리 수사극. 공개된 사진에는 '암행어사'에서 조선판 부캐 부자로 활약 중인 의리, 사명감, 정의 다 가진 매력계 흉다인의 입덕 유발 4단 변신이 담겼다.

여사대 홍일점, 기녀, 꽃도령, 주모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맞췄을 입은 듯 소화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기녀로 신분 숨긴 채 고위 관료들의 비밀을 캐낸 다모 다인은 조차 암행어사 성이경, 그의 몸종 백준삼과 여사단을 이휘전 여사의 행방을 파헤치고 있다. 조선의 제일의 기녀로 강렬하게 등장한 다인은 신분이 들킬 위험에 처하자 꽃도령으로 변신하는 위장술과 처세술을 뽐냈다. 여사대 합류 후에는 매운맛 기녀



로 변신해 뒷세 부리는 기녀들에게 시원한 한 방을 날리고 전 여사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아는 사월에는 위도와 희망을 주는 인간미를 자랑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방송된 3-4회에서 다인은 기녀, 여사대 홍일점, 주모로 변신해 매력을 터뜨렸다. 다인은 사월이 죽자, 기녀로 그를 죽인 강종길을 직접 상대하겠다고 나서며 대범한 기질을 자랑해 심금을 울렸다.

정의, 사명감, 의리 다 갖춘 다인은 광산에 끌려간 이경과 준삼을 구하기 위해 직진했다. 왕의 호위 무사인 최도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화염산으로 향했던 것. 화염산 진입 방법을 고민하던 다인은 너스레 갑 주모로 변신했다. 특히 술에 약을 타는 기질을

발휘해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던 광산 내부로 초도화했다.

다인의 기지가 먹힌 탓에 화염산 경비병들을 모두 잠에 빠졌지만, 때마침 등장한 종길에게 붙잡힌 다인은 벼랑 끝으로 떠밀린 채 4회 엔딩을 맞아, 오늘 방영될 '암행어사' 5회를 더욱 기다려지게 했다. 권나라는 '암행어사'에서 다재로운 변신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매력과 능력을 다 갖춘 인물 '흉다인'을 빛내고 있다. 인물에 따라 눈빛, 표정, 말투 등을 섬세하게 변주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한층 성숙해진 완급 조절로 유쾌함과 진지함을 모두 담은 '암행어사'의 치트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시청자들의 입덕을 부르고 있다.

최재은/기자

윤종신-장윤정-규현-웬디 4MC 나선 '신비한 레코드샵',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가 MC로 나서 화제 불이를 하고 있는 JTBC 새 음악 토크쇼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이 오는 22일 금요일 밤 9시로 첫 방송을 확정했다. 예능 격조지인 금요일 밤에 편성돼 안방극장에 음악을 통해 웃음과 감동 배달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JTBC 신곡 음악 토크쇼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 측은 4일 "신비한 레코드샵"이 현재 방영 중인 '캠핑캠프' 후속으로 오는 22일 금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며 "따뜻한 토크와 라이브 무대로 금요일 밤에 힐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비한 레코드샵'은 4MC와 함께 공통의 직업으로 묶인 게스트들의 '인생 이야기'와 '인생 곡'을 소개하며 완성하

는 음악 예능이다. 2021년 JTBC에서 선보이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신상 음악 토크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을 준비를 끝마쳤다. '신비한 레코드샵'은 매회 다양한 직업군의 게스트를 초대해 그들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진행한다. 기존의 음악 토크쇼와는 달리 대중의 이야기에 포커싱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음악 토크쇼로 모두의 공감을 자극하며 차별화된 재미로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이방인' 윤종신의 방송 복귀작으로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데 이어 반가운 얼굴 웬디와 각종 음악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장윤정, 규현까지 가세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MC 조합을 완성했다. 이들 4MC는 어떤 케미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첫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신비한 레코드샵' 제작진 측은 "국내로 돌아오는 '음악 장인' 4MC가 매우 다양한 직업군의 게스트가 출연해 폭넓은 음악 이야기를 나눈다"며 "따뜻한 음악과 감성으로 금요일 안방극장을 웃음과 감동으로 적실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화려한 MC진과 음악 예능의 평가 JTBC가 만나 관심을 높이는 '신비한 레코드샵'은 오는 1월 22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국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세계를 무대로 한 OTT 경험을 주무기로 콘텐츠를 공급해왔던 SM C&C STUDIO가 JTBC와 처음으로 합작해 만드는 작품이다.

최광수/기자